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실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9월 29일 금요일 (음 8월 10일) 제190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 우리농산물로 만든 달콤한 송편드세요



추석 명절을 앞둔 28일 농전진흥청 내 옹공제 정자에서 전주시 도담 어린이집 원생들이 한복을 입고 우리 농산물인 수수, 조 등 잡곡을 이용해 만든 송편을 들어보이고 있다.

## 전주탄소국가산단 예타 통과 확정적

KDI 예타결과 정책타당성·지역균형발전 종합 AHP 0.582로 기준치 0.5 초과 LH, 11월부터 산단 지정 신청 내년 상반기 승인받아 하반기부터 용지보상 추진

전북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송하진 도지사 공약사업인 '전주 탄소소재국가산단 조성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통과가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KDI 최종보고회에서 B/C가 1.55로 높게 나와 예타 통과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진데 이어 28일에 KDI가 정책적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종합한 AHP를 잠정적으로 완료하고 그 결과(0.582)를 국토교통부에 알린 것이다.

통상적으로 BC 1이상 AHP 0.5이상일 경우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전북도,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업하여 사업규모 조정, 유치업종 확대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지난 1월에 기재부에 재예타 신청서 접수 및 재예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에 기재

부가 예타 재추진 타당성을 인정해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결과라고 밝혔다.

예타가 통과되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 LH는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 2018년 상반기 중에 승인을 받아 하반기부터 용지보상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주 탄소소재국가산단단지조성사업은 2022년까지 2,300억원(국비 505억원, 지방비 115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680억원)을 투입해 탄소산업 집적화단지 63만8,485㎡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45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27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김진성 기자

등근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세요

- 전주매일 임직원 일동

## 전주 남부권역 주민들 건강한 여가생활 기대

시, 평화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0월부터 착공 완공은 내년 말 예상

전주시 평화동 등 남부권역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본격화된다.

시는 평화동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등의 절차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전주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진흥 기금 30억과 지방비 80억원 등 총 사업비 110억이 투입돼 완산구 평화동 2가 322-1번지 일원 1만1,799㎡부지에 지하층과 지상 2층, 연면적 2,895㎡로 건립되며, 다목적체육관과 체력단련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농구장, 족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로 구분해 들어설 예정이다.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체육시설이 부족한 전주 남부생활권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부권역에도 대규모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돼 모든 시민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해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건강한 운동을 즐기는 생활스포츠도시에도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한층 더 높은 체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MB정부, 정진석·박형준 등 총선 지원"

민주당 적폐청산위, 문건 폭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28일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박형준 청와대 시민사회 특보 등 19대 총선 출마자를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적폐청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폭로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팀에서 2011년 12월 작성한 '대통령실 진출자 총선 출마 준비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19대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2명, 비서관 7명, 행정관 2명 등 11명에 대한 청와대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고 전했다. 해당 문건에는 통일비서관을 지낸 정문헌 전 의원, 행정관을 지낸 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은 "이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퇴임 이후 안전관 역할을 하도록 당선을

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동향 파악 및 지역 민원을 청취할 대통령실 내 지원창구를 설치해 총선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며 "참 기막힌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결국 이명박 정부는 보수단체를 이용한 관선선거를 획책했을 뿐 아니라 청와대가 중심이 돼 전방위적 선거지원으로 자신의 퇴임 후 보호 방안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증명됐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 수사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건을 입수한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김효재 전 이명박 대통령 정무수석의 김성준 보좌관이 유출한 것으로 2014년 9월과 201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대통령비서실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인계됐다. /뉴시스

**\*\*추석연휴 관계로 10월 9일까지 신문 쉽니다.**

축! 전주매일 창간

김제시의회 http://council.gimje.go.kr

시민의 생각이 김제시의회의 생각입니다.